

## “집터 나쁘면 癌 걸린다”

**땅** 속에는 지전류(地電流)가 흐르고 있다. 이 지전류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쳐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지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약하게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동양식 풍수지리설과 흡사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가 요즘 구미(歐美)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독일인 구스타프 프라이헤르 폰 폴(Gustav Freiherr von Pohl)이 쓴 「지전류(Earth Currents)」가 그것이다.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란 부제(副題)가 붙은 이 책은 이틀테면 서양식 풍수지리설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인 구스타프가 1932년 출간  
78년 재판되면서 베스트셀러에

이 책은 원래 1932년 처음 출간됐으나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50여년이 지난 78년에 재판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87년에 나온 영문 번역본도 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책 서문에서 저자가 밝혔듯이 저자의 주장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고방식의 구

미인들에게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지전류 때문이다. 지전류는 동식물의 기관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동식물의 기관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동식물은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또 지전류 세기의 정도에 따라 동식물은 각각 상이한 질병을 앓게 된다.

구스타프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의학계의 「新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과 경험에 의심을 품는 사람에게 그는 쇼펜하워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흔히 처음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과학이 여기에 관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상식이 되어 버린다.』

20세기 들어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자들은 암의 진짜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0세에서 70세 사이에 많기 때문에 암은 흔히 노년기의 질

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암은 어떤 연령층에서나 나타나며 심지어 5세 이하의 어린이조차 걸리기도 한다.

암 발생의 빈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스위스는 인구 10만명당 1백 24건의 암이 발생. 세계 최고의 암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암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미 각국과 일본등은 스위스보다 암발생률이 낮지만 인도나 중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통계학은 나라별로 상이한 암발생률의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다. 생활양식, 사회적 지위, 인종, 종교, 성별, 유전, 직업, 지질학적인 차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단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하의 형태와 암의 분포를 연관지은 연구는 1880년대 영국인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이후 독일인 콜프와 프린칭은 가옥과 토양이 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1914년 고켈교수는 지전류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지전류가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물리학계에 보고했다. 이때 고켈교수가 지전류라고 생각한 것은 방사선뿐이었다.

그러나 구스타프는 지전류에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음의 전류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류는 도체(導體)구실을 하는 따올 통해 지표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구스타프는 당시로서는 이 지전류의 강도를 측정할 기술적 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구스타프는 지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점(占)막대기」(divining rod)를 사용했다. 이것은 옛날부터 점쟁이들이 수맥이나 광맥을 찾는 데 이용해오던 것이다.

“  
구스타프는  
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집을 방문,  
그의 침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고도 그 위치를  
지적할 수가  
있었다.  
”

구스타프가 사용한 점막대기는 가느다란 청동막대기와 쇠막대기 2개로 구성돼 있다. 이 점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지전류가 흐르는 곳에 서는 땅을 향해 점막대기가 구부러지게 된다. 지전류가 약한 곳에서는 조금밖에 구부러지지 않지만, 강한 곳에서는 도저히 손으로 붙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부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점막대기를 써서 지전류의 형태와 강도를 판단하는 데는 경험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구스타프는

노련한 점쟁이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지팡이가 구부러지는 정도에 따라 지전류의 세기를 12~16단계로 나누어 측정했다.

구스타프는 25년간 지전류를 측정하면서 조사해본 결과, 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침상은 거의 예외없이 지전류가 강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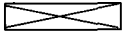

또 많은 질병은 그 환자의 침상이나 작업장이 지전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있을 때에 발생한다는 점도 발견해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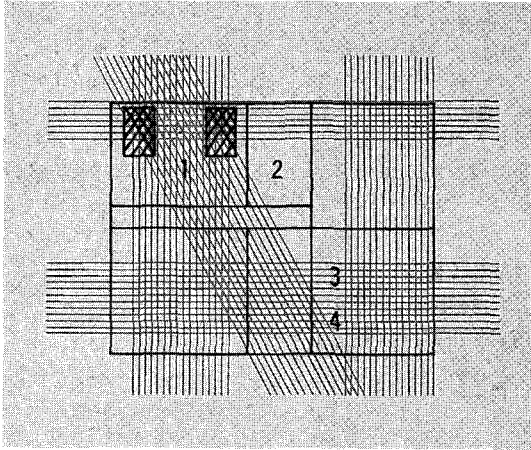
구스타프는 지전류와 암발생의 관계를 규명하는 자신의 방법이 과학적임을 증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구스타프는 1929년 1월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필스비부르크라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다. 5백 60여가구 3천3백명의 주민이 살고 있던 이 마을은 그가 전혀 보도 듣도 못한 마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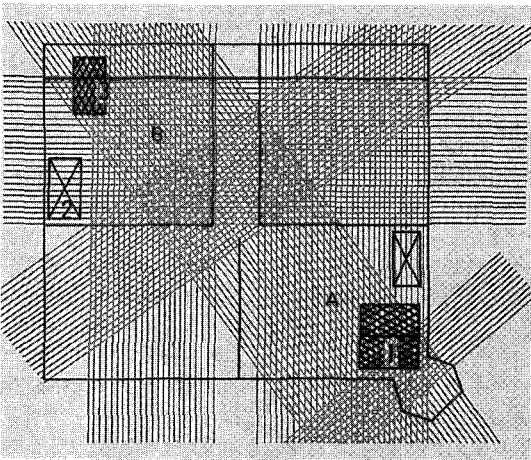
여기서 그가 한 작업은 마을 전역의 지전류 맥을 찾아내 그것을 지도에 그려 넣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마을주민들의 사망진단서와 비교해 보았다. 물론 주민들의 사망에 관한 사항은 전혀 모른 채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총장과 경찰관을 대동했다. 작업은 1주일간 매일 8,9시간

씩 강행한 끝에 완료됐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마을 전역의 지전류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때문이었다고 구스타프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

- 1. 본래의 침대자리 
- 2. 옮긴 후의 침대자리 
- 3. 지전류의 맥 



〈그림 2〉 지전류에 강력히 오염된 집. 방 A에 있는 ①침대에서 잠지던 집주인은 4년만에 전립선 암으로 죽었다. 또한 방 B에서 자던 딸은 침대를 ②에서 ③으로 옮긴 뒤 잠을 못 이루다 침대를 원래의 위치로 가져간 뒤 관창아졌다.



〈그림 1〉 장소 ①은 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왼쪽의 침대를 쓰던 부친이 식도암으로, 오른쪽 침대를 쓰던 모친은 위암으로 사망했다. ②는 지전류가 거의 없어 안전한 곳이며 ③과④에도 두가지의 지전류 맥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지도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마을에 보관된 공식 사망진단서에 따른 과거 10년간의 암 사망자 48명 모두가 지도상의 강력한 지전류 표시부분에서 나왔던 것이다. 공식문서에 따른 사망자뿐만 아니라 촌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6명의 암 사망자도 거기서 나온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구스타프는 사망자의 집을 방문, 사망자의 침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족들에게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도 그 위치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다. 또 지전류와 암발생의 관계는 지상 22m 높이의 탑에 거주하던 암 사망자에게서도 확인됐다.

### 여러 마을 현지조사 통해 암과 지전류의 상관관계 제시

필스부르크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의 현지조사를 통해 구스타프는 「암의 집」이 존재함을 확신하고 있다. 이 「암의 집」은 예외없이 모두가 강력한 지전류가 흐르는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박테리아가 암을 일으킨다고 믿는 현대 의학자들은 「암의 집」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의학자들도 많다고 구스타프는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지전류에 오염된 가옥이 한 가족의 소유이고, 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침실을 아들이 물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아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통계학은 이를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후손이 지전류에 오염되지 않은 침실을 사용하면 암에 걸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암환자가 발생할 수는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가족의 성원이 다른 장소라도 지전류가 강한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구스타프는 주장한다.

『가족 중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없다. 지전류가 강한 곳(방사선이 많이

방출되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으로 죽은 지 수년 후 그 집의 지전류를 측정했을 때 지전류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지각변동에 따른 지진 등으로 인해 지전류의 맥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암환자나 암사망자의 침실에서 지전류가 측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강력한 지전류가 없는데도 암이 발생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구스타프의 지전류 암발생설을 실제 환자치료에 이용하는 의사들도 있다. 독일 볼프라츠하우젠 도립병원의 의사 비르켈바흐는 직접 점막대기를 들고 암환자 침실을 옮기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 그는 그 결과를 외과학회에 보고하는 등 대단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비르켈바흐 보고의 한 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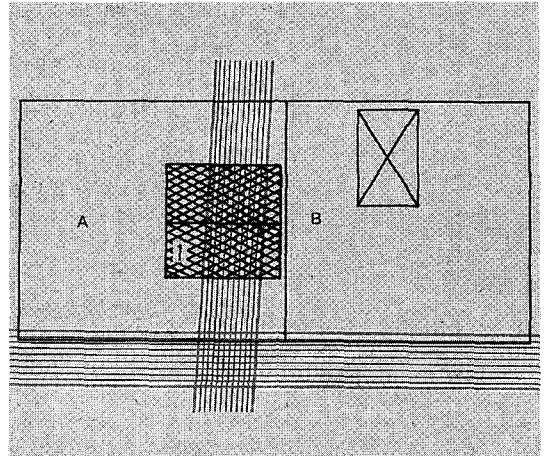
한 환자가 찾아왔다. 그의 양친은 40세까지 살았는데 20년간 같은 집, 같은 침실에서 생활했다. 양친은 모두 암의 진단을 받고 1년내에 사망했다.

비르켈바흐는 그 집의 지전류를 측정, 〈그림 1〉과 같은 도면을 그려냈다. 그림에서 ①부분은 두세가지의 지전류 맥이 겹치는 곳으로 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이다. ②는 지전류가 거의 없어 가장 안전한 곳이다. ③과 ④는 두가지의 지전류 맥이 흐르기 때문에 나쁜 장소다.

환자의 설명 결과 ①부분의 왼쪽 침대를 쓰던 부친을 식도암으로 사망했고, 오른쪽 침대를 쓰던 모친은 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②부분에서 생활해왔는데, 84세가 되도록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③과 ④의 방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부부는 몸이 좋지 않아 항상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다.

### 구스타프의 지전류 암발생설 이용 실제 치료에 이용하는 의사도 있다

〈그림 2〉 또한 지전류에 강력히 오염된 집을



〈그림 3〉 방 A에 있는 침대 ①에서 잠을 자던 H부인은 가려움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지전류의 영향이 없는 방 B로 침대를 옮긴 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나타내준다. 이곳의 가족은 이 집을 새로 짓고 이사해왔다. 평소 건강하던 집주인은 이 집으로 이사한 이 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 2년째에는 방광에 이상이 생겼다. 그의 침대는 지전류의 맥이 세게나 교차되는 곳(①)에 있었다. 그는 이사한 지 4년 만에 전립선암으로 죽었다.

그의 부인도 수년간 폐결핵을 앓다가 남편이 죽자 침대를 지하실방으로 옮겼다. 그 후 그녀는 잠도 잘 자게 됐으며 건강도 좋아졌다.

방 B에서 자는 그녀의 딸은 감수성이 뛰어난 소녀였는데 침대를 ②에서 ③으로 옮기고 난 뒤부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침대를 원래의 위치 ②로 되 옮기고 나서부터는 괜찮아졌다.

지전류는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발생의 원인도 된다. 어떤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이 지전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한밤중 잠자리에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미약한 지전류에 의한 증상은 신경성 가려움증과 불면증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잠자리를 지전류가 없는 곳으로 옮기면 금방 없어진다. 지전류에 특히 민감한 여성은 약간의 지전

류에도 히스테리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림 3〉은 대표적인 가려움증과 불면증, 그리고 그 치료사례를 보여준다.

H부인은 방 A에 있는 침대 ①에서 늘 잠을 잤다. 잠자리에 들면 그녀는 편안치가 않았으며, 특히 손에 신경성 가려움증을 느꼈다. 또 살인에 관한 악몽을 자주 꾸었다.

이 부인은 침대를 방 B로 옮기고 난 뒤부터는 처음으로 악몽없는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었다. 가려움증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전류의 영향을 받은 침실에서 자는 사람을 잔병을 앓는다. 이것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한 부부가 구스타프를 찾아왔다. 그 부부는 건강한 편이었으며 한살짜리 어린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애가 잘 성장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밤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대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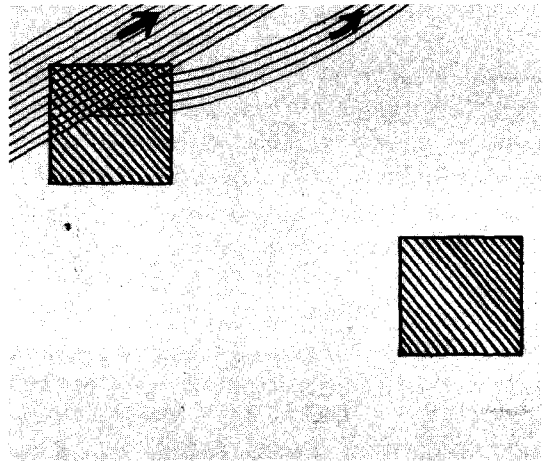
구스타프가 이 집을 방문해서 지전류를 조사해보니 어린이용 침대가 있는 곳이 지전류에 오염돼 있었다. 침대를 옮기고 곧 어린애를 눕히자 이 애는 3시간이나 잠에 푹아 떨어졌다. 밤에도 12시간 이상 잠을 잘 자게 됐다. 이 애는 나날이 건강해져 갔다.

지전류에 극심히 오염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특히 아침결에 종종 마비증세를 보이는 수가 있다.

이같은 증세에 시달리는 한 여성환자가 있었는데, 여러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남편도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으며, 신경질적이었다. 이 부부는 25년간 한 연립주택에서 살아왔는데, 침실이 지전류에 강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전류가 뇌에도 영향 끼쳐 정신질환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주택내에서 지전류에 오염되지 않은 장소는 뒤 골방밖에 없었다. 여자의 침대를 이 골방



〈그림 4〉  
왼쪽 위의 집은 지전류가 흘러 가족들이 각종 질병을 앓았으나 오른쪽 아래로 집을 옮기고는 이런 흉사가 없어졌다.

으로 옮기고 난 다음날 아침부터 그녀의 마비증세는 사라졌다.

오랫동안 기차를 타면 신경통 치통 두통 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창틈으로 새들어오는 바람 때문인가 싶어 창문을 살펴보면 창문은 꼭꼭 닫혀 있기 일쑤다. 이같은 경우는 좌석이 바퀴 바로 위에 있을 때 더해진다.

원인은 지전류일 가능성이 높다. 지전류가 레일을 통해 바퀴에 전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승객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럴때는 객차 가운데 좌석을 잡는것이 도움이 된다.

장시간 X선을 쬐거나 자주 쬐게 되면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침실에서는 지전류가 강할 때도 똑같은 이유로 불임이 될 위험이 커진다. 오랫동안 애가 없거나, 애를 원하면서도 첫애를 늦게 본 부부의 경우 침실이 지전류에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신중인 여자는 특히 지전류가 강한 곳에서는 자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지전류가 조산아 허약아를 낳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전류에 오염된 장소에 병실을 설치한 병원에서는 혈전증(血栓症) 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전류가 인체의 각 기관에 악영향을 끼치듯 뇌에도 영향을 주어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신병원의 치료를 통해 정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정신병을 앓는 경우 지전류를 의심해봐야 한다. 지전류의 영향이 없는 병원에서는 멀쩡해졌다가 귀가해서는 지전류에 오염된 침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전류에 의해 생기는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짐작대기로 지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림 4〉에 나타난 왼쪽 위의 집은 지전류가 흘러 가족들이 각종 질병을 앓았으나, 오른쪽 아래쪽으로 집을 옮기고나서부터는 이같은 흉사가 없어졌다.

사람만 지전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말은 지전류에 아주 민감한 편이다.

마구간이 상습 지전류 오염지역에 있을 때 말은 갈기의 윤기를 잃으며, 잘 먹지 않고 마르게 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류머티즘에 걸리거나 절름발이가 되기도 한다.

그 밖에 소나 돼지, 염소, 양, 닭, 개 등 대부분의 가축이 지전류에 악영향을 받지만 고양이와 꿀벌은 그 반대다. 고양이는 항상 지전류가 강한 곳에서 웅크리고 있으며 잠도 거기서 잔다. 방안에 지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지전류가 있는 곳을 찾아 계단 같은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 류머티즘 환자들이 고양이 고기나 털을 약으로 삼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 말은 지전류에 의해 병에 걸리고 여왕벌 있는 장소는 地電流 강한 곳

꿀벌도 강한 지전류를 좋아한다. 양봉장소도 지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꿀의 수확은 더 많아진다.

꿀벌은 스스로 지전류가 강한 장소를 찾아간

다. 여왕벌이 자리를 잡는 곳은 예외없이 지전류가 강한 곳으로 보면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양봉업자 가운데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다. 양봉업자는 매일 수차례씩 벌에 쏘인다. 벌침이 갖고 있는 독소는 항암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지전류가 인체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틀림없다.

류머티즘 환자들이 벌에 한번 쏘이고 나면 수일간은 고통이 덜해진다고 한다. 이 벌의 독소에서 뽑아낸 것이 「아피코산」이라는 류머티즘 치료약이다.

개미도 강력한 지전류를 좋아한다. 개미가 서식하는 곳은 지전류가 강한 곳이라고 봐도 틀림없다.

식물 또한 지전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숲이나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는 그 수명이 지전류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전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무는 미국의 삼나무밖에 없다.

식물 가운데 참나무가 지전류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생명력도 질긴 편이다. 참나무는 보통 지전류의 맥이 여러개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벼락의 좋은 표적이 된다. 벼락을 맞고도 약 3년간은 더 생존할 수 있다.

반면 너도밤나무는 지전류에 가장 민감한 편이다. 너도밤나무는 지전류 맥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만약 오래된 너도밤나무에 벼락이 친다면 지전류 맥의 흐름이 바뀌어 그 밑으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둥번개가 치는 날은 참나무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너도밤나무 밑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